

춘향전과 순정만화를 통해 본 '낭만적 사랑'의 형성과 변화

황 혜 진*

<차례>

1. 서론: 국어교육과 만화
2. 여성 청소년이 즐기는 순정만화
3.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의 의미
4. 춘향전과 순정만화에 형상화된 '낭만적 사랑'
 - (1) 춘향전에 나타난 '낭만적 사랑'의 초기적 양상
 - (2) 순정만화에 나타난 '낭만적 사랑'의 지속과 변화
5. '낭만적 사랑'의 형성과 변화
6. 결론: '비판'과 '즐김'의 대중문화 교육

1. 서론: 국어교육과 만화

국어교육의 장 안에서 만화는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다. 7차 국정 교과서 및 대다수의 문학교과서에서는 만화를 활용하고 있기에 만화를 통한 교육, 만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화에 대한 국어교육적인 인식을 이끄는 관심은 세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매체에 대한 관심이며 다른 하나는 대중 문화에 대한 관심, 마지막으로 교육의 대상인 청소년 문화에 대한 관심이다.

* 한성대학교 강사

매체에 대한 관심은 다매체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같은 지식이라도 문자 이외의 다른 매체를 활용하여 지식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현실화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 그림 설명: 학생 셋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학생1 “개놈 유전자 지도가 완성됐으니 이제 못 고치는 병이 없겠구나”

학생2 “생물의 유전자를 변형하면 식량 부족도 해결되지 않을까?”

학생3 “개놈?”

-「국어생활」, 블랙박스, 29면

‘국어와 우리의 사회·문화’라는 단원의 도입부에 삽입된 이 만화는 학생들에게 학습의 동기 유발 측면에서 신조어나 전문어를 이해하지 못해 대화에 끼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지를 흥미롭게 생각해보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학습 내용 자체가 만화로 제작된 것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실제 역사를 내용으로 하는 만화물(만화로 보는 한국사’류)이나 세계의 문화를 그린 만화물(‘먼나라 이웃나라’ 등)은 지식을 흥미롭게 전달하려는 교육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 그리고 문학 작품의 경우, 대다수 교과서에서 삽화를 곁들이고 있는데, 이 역시 문학 작품의 내용을 형상적으로 쉽게 이해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만화를 활용한 교육 내용의 전달과 가깝다.

좀더 나아가 오세영의 <복덕방>같은 경우나 윤승운의 <메밀꽃 필 무렵>은 만화로서 교과서에 직접 제시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만화와 소설을 비교하여 각 매체 언어의 차이를 알게 하거나²⁾, 만화가 소

1) 이런 만화를 ‘학습만화’라고 하는데, 이 종류의 만화는 전체 만화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일보, 2003/02/07)

2) 그 예로 다음과 같은 학습 활동을 들 수 있다. · 만화의 첫 세 장면은 소설의 다음 부분에 해당한다. 소설에서 만화로 전환되면서 그림으로 처리된 것, 지문이나 대사로 수용된 것, 바뀐 것 등을 지적해 보자. (문학(하), 디딤돌, 65면) · 다음을 중심으로 소설 <메밀꽃 필 무렵>과 만화 <메밀꽃 필 무렵>을 비교·평가해 보자. (문학(하), 디딤돌, 66면) · 만화의 방 안 풍경 묘사는 소설과 비교할 때 어떤 면에서 다르게 처리되었는지 말해 보자. (문학(하), 블랙박스, 76면)

설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라고 할 때, 학생들의 해석과 비교해 보게 하
는³⁾ 학습 활동이 이어진다.

한편,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은 기존의 교양 교육으로서 문학교육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그렇지만 인문학적 문화의 전
수가 여전히 의미 있는 교육적 목표로 받아들여지는 현실⁴⁾에서 “사람
들이 대중문화를 즐기으로써 행복을 추구한다는 사실”⁵⁾은 종종 망각된
다. 그래서 대중문화는 교육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장권을 아예
얻지 못하거나, 입장하더라도 비판을 당하는 처지에 처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교육의 효용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교육에서 기피나 비판의 대상이 되는 대중문화는 실로 오랜 기간 문학
교육과 국어교육을 받은 대중문화 생산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으
로 인해서이다.⁶⁾ 대중문화 교육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시각⁷⁾도 있으나, 원론적인 차원에서

- 3) 다음과 같은 학습 활동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 여러분들이 각자 만화를 그리다면 이 인물들의 어떤 특징을 강조하여 어떤 형상으로 그리겠는지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해 보자. (문학(하), 블랙박스, 76면) · ① 원작을 읽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만화로 그려진 등장 인물들은 각자가 상상한 모습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말해보자. ② 만약 다르다면 등장 인물들을 각자가 상상한 모습으로 바꾸어 그려 보자. (문학(하), 디딤돌, 65면)
- 4) 다음과 같은 '문학적 문화'에 대한 설명은 문학교육이 교양 교육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문학교육이 문학적 문화는 문학이 주로 다루는 영역은 인간의 존재와 본질에 관한 것이므로, 문학교육은 문학을 가르침으로써 인간의 상상력을 고양시키고 삶의 총체성을 체험하게 하여 과학적 합리주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편, 『국어교육학사전』, 대교, 1999) 이러한 설명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스노우의 『두 문화』에서 설정된 과학적 문화와 인문학적 문화의 대립이다. (찰스 P. 스노우, 『두 문화』(오영환 역), 민음사, 1996) 이러한 구도는 다음과 같은 논의에서도 발견된다. “과학문명이 인류가 밟 디디고 살아 온 문화를 형제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가한다면 인문학은 그것을 복원시키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김동환, 「문화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 『국어교육학회자료집』, 2002.9.14.)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 '문학 문화' 등을 둘러싼 해석의 경합은 각 교과서마다 '문학과 문화'라는 단원의 내용을 달리 설정하고 있다는 데에서 엿볼 수 있다.
- 5) 이삼형 외, 『국어교육학』, 소명출판, 2000, 128면.
- 6) 김동환, 「문화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 『국어교육학회자료집』, 2002.9.14, 78면.
- 7) 이삼형 외, 앞의 책, 128면 참조.

논의될 뿐 연구 성과가 축적되거나 교육적인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치 판단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만화에 대한 교육적 관심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창구는 바로 만화가 학습 대상인 청소년들이 향유하는 문화라는 점에서 찾아진다. 청소년들이 향유하는 문화를 곧바로 교육 내용으로 삼지는 않더라도 교육의 대상인 청소년과 그들을 둘러싼 문화적 상황에 대한 기초 연구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만화에 대한 세 가지 교육적 관심 중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실현되는 것은 첫 번째 '매체 언어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대중문화나 청소년문화로서 만화에 대한 교육적 연구나 실천은 아직 미약하며, 연구의 영역에 한정할 때, 관심을 갖게 된 시기도 그리 오래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영국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자국어교육의 목표 중의 하나인 '문화 분석관'이 진지하게 교육적 가능성으로서 논의되고 있고⁸⁾, 시민단체에서조차 국어교육에 대해 "언어 교육도 언어를 매개로 한 다양한 사회관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 함양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⁹⁾고 주장하며 '현실 읽기와 비평하기', '문제설정', '담론 분석과 구

8) 영국의 교육과정에 자국어교육의 목표로 제시된 것은 '①개인적 성장관, ②법외과정적 관점, ③성인적 실용관, ④문화 유산관, ⑤문화 분석관'이다. '문화 분석관'은 학생들이 살아 가는 세계와 문화적 환경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다. 이 일에 주된 책임이 있는 것이 국어교과이므로 국어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의미가 전달되는 과정을 알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학생들은 인체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매체가 가치를 전이시킨다는 점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김대행, 『매체언어 교육론 서설』, 『국어교육』9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20-21쪽.)

9)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가 개최한 '국어교육의 비판적 점검과 언어문화교육의 모색'이라는 토론회에서 발표된 문화평론가 고길섭의 발제문(한국일보(2003/01/06)에서 재인용)이다. 사실 이런 주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국어교육학』이라는 제목을 걸고 있는 국어교육학 입문서의 다음 내용과 비교해 보자. "무책무취한 방식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룰 것이 아니라, 당대의 문화를 교육의 장 안에 끌어들이고, 그 각각의 문화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인식함과 아울러 각각의 문화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문화적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적극적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삼형 외, 앞의 책, 128면) 거의 같은 주장을 말을 바꾸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어

성', '언어시장과 대중매체'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언어문화교육 시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이 즐기는 대중문화로서 만화에 대한 국어교육적인 관심과 연구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대중문화나 청소년 문화로서 만화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국어교육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교육 철학적인 전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과정의 목표를 조정하고, 그 목표에 맞도록 만화를 교육 내용으로 제발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인기의 연구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는 전통적인 문해력(literacy)의 영역을 당대 문화로 확장한 문화적 문해력을 철학적 수준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⁰⁾ 이러한 틀짜기가 이루어질 때만이 대중문화나 매체에 대한 각론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 일상적인 문화를 이해하고, 성찰적인 태도를 갖게 하며, 가치를 실천하는 데에까지 이르게 하는 문화적 문해력의 교육은 앞서 소개한 시민단체의 주장이기도 한데, 이들의 주장이 사회적인 합의를 얻게 될 때 갑작스럽게 초래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의 부재라는 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대중문화, 청소년문화에 대한 교육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청소년들이 즐기는 만화가 국어교육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만한 틀이 확고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화는 교육적인 제재로 합의된 문학 텍스트를 확장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만화와 문학 간의 일종의 가교를 놓으려는 의도로서 교과서의 주요 제재로 다루어지고 있는 춘향전과 순정만화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조선 후기 애정소설인 춘향전과 연애담을 제재로 하는 순정만화는 남녀 간의 애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처럼 보이는 감정이 어느 정도 역사성과 사회성을 띤다고

교육계 외부에서 그러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음은 국어교육이 여전히 현재 문화의 수용에 적극적이지 못함을 되돌아보게 한다.

10) 박인기,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회지』(2002.9.14).

할 때, 두 애정서사물의 '사랑'이 얼마나 같고, 다른지 확인하는 것은 감정적인 문화를 이해하고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며, 이는 '총체적인 삶의 체험'을 목표로 하는 문학교육의 본령과도 그리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어지는 장은 순정만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여성을 목표 수용자로 하고 있는 순정만화의 특수성과 필자의 순정만화 체험기를 소개하며, 한 번도 순정만화를 읽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 남성들 혹은 여성들이 어느 정도 순정만화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2. 여성 청소년이 즐기는 순정만화

'출판문화'라는 대주제에 맞게 현재 출판되는 만화의 지형도를 그리는 일은 필자에게 상당히 벅찼지만, 출판되는 만화가 두 '제국'으로 양분된다는 사실은 몇몇 만화 대여점에 들어가자마자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 두 제국의 이름은 바로 '남성 만화'와 '여성 만화'¹¹⁾이다. 출판사들은 단행본이나 만화 잡지를 출판할 때부터 성별을 중심으로 목표 수용자를 나눈다. 대부분의 대여점에서는 이렇게 출판된 만화를 각각 남성 만화 코너와 여성 만화 코너에 꽂아둔다. 그래서 대여점에는 여성 고객이 모여있는 곳과 남성 고객이 서성이는 곳이 구분된다.

목표 수용자의 성별이 확연히 나뉘고, '순정만화'라는 대표적인 여성 전용 만화가 존재하는 것은 아시아의 일부 유교문화권 국가에만 국한된 특수한 문화적 현상이라고 한다.¹²⁾ 또 순정만화는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에 대한 만화'라고 할 수 있는데, 순정만화는 거의 대부분

11) '여성 만화'는 종종 여성주의 만화를 지칭하는 것으로도 쓰이나 이 연구에서는 여성이 주로 보는 만화라는 의미로 사용하겠다.

12) 곽선영, 「여성장르로서의 순정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 2001. 국문초록.

여성 만화가들에 의해 생산되며, 여성 독자를 목표로 하고, 여성 주인공이 사랑을 성취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보편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순정만화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이전에 필자의 만화 체험기를 소개함으로써 순정만화와 여성 독자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화가가 되고 싶어했다가 색맹이라는 이유로 꿈을 접고, 색을 쓰지 않는 만화가가 되려 했다가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나서, 전공과 상관없는 계통의 소규모 자영업을 해왔던 아버지를 두고 있다. 만화광이신 아버지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남성, 여성의 구분이 없는 <보물섬> 등의 만화 잡지를 정기 구독하여 왔으며, 아버지가 빌려오는, 길창덕, 이현세, 허영만, 박봉성 등의 만화를 좋아하였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또래 동성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부터 여성 만화를 주로 읽기 시작하였다. 이 때는 어느 정도 의무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갈채>(이영숙), <아르미안의 네 딸들>(신일숙), <굿바이 미스터 블랙>(황미나) 등을 읽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없었으며, 느낌이 공유되지 않으면 동성 친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종의 해석공동체이기도 한 또래 여성 집단을 떠났음에도 여전히 여성 만화를 여가로서 즐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성 만화의 수용자로서 정향된 독해 능력과 취향이 여전히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을 한 지금도 가끔 남편과 함께 만화 대여점을 찾기도 하는데, 우리는 각자의 코너에서 책을 고르며, 서로가 읽은 만화에 대해서는 진지한 담화를 나누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는 하나의 사례이지만 순정만화 읽기는 어느 정도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 순정만화가 청소년기 여성들의 또래 집단에서 의사소통의 자원으로 기능한다는 것, 또 남성에 비하여 순정만화에 대한 여성의 관심이 많으며, 호감도가 높다는 것 등을 드러내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은 순정만화 독자 특성을 고려할 때, 순정만화와 여성 독자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순정만화는 여성 청소년들¹³⁾의 감정 생활에 대해 다른 어떤 대중 매체보다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순정만화에서 그려지는 사랑 이야기는 여성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생활에 개입하여 자신이 사랑하게 될 대상의 이상을 제공하며, 어떻게 연인과 정서적인 교류를 갖는지, 자신의 사랑의 서사에 어떠한 결말을 써나가야 할지 알려주는 일종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 순정만화의 여성 주인공과 연애의 기술은 여성 청소년들에게 모방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위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청소년의 일상적인 문화를 고찰한 윌리스는 '로맨스'를 통해 여성 독자들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젊은 남성들과 관계를 조정하는 것¹⁴⁾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로맨스가 청소년기 여성의 정서적인 삶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며 여성적인 주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할 때 교육 연구에서 그 현상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즐기는 대중문화로서 만화에 대해 하나의 교육적인 가능성을 제시하려고 한다. 3장에서는 우선 역사성을 갖고 있는 '낭만적 사랑'의 의미를 살펴보고, 4장에서는 춘향전을 대상으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낭만적 사랑'의 초기 형태를 확인하며, 현재의 순정만화에서 그려지는 '낭만적 사랑'과 비교하여 검토할 것이다. 5장인 결론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교육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확인하며, 논의의 확장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다.

3.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의 의미

우리는 흔히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사랑을 '낭만적 사랑', 혹은 '로맨스'라고 한다. 또 우리는 연인이 낙엽 지는 거리를 팔짱끼면서 걷는 장면, 자상한 남편이 타준 커피를 함께 마시는 풍경에 대해 낭만적이라 지칭한다. 이렇게 '낭만적', 혹은 '낭만'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

13) 청소년기의 여성을 어떻게 지칭해야 할지 곤혹스러움을 느낀다. 본고에서는 여성 청소년이라는 모순형용사적인 표현으로써 난관을 회피하고자 한다.

14) Paul Willis, *Common Culture*, Open University Press, 1990, 115-118면 참조.

는 만큼 연구에 필요한 개념어로서 정립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우선 이 단어에 대한 사전적인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낭만'과 '낭만적'이라는 말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낭만 : 현실성이 적고 매우 정서적이며 이상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심리 상태.

또는 그런 심리 상태로 인한 감미로운 분위기.

낭만적 : 현실적이지 않고 환상적이며 공상적인. 또는 그런 것.

이러한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낭만성은 '실현성이 적음(이상적, 비현실적, 환상적, 공상적)'과 '과도한 정서(매우 정서적, 감미로움)'을 특징으로 한다. 이로 미루어보아 언중(言衆)들에게 '낭만적 사랑'이라는 말은 실현 가능성이 적으며, 매우 정서적인 사랑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짐을 알 수 있다.

원래 '낭만(浪漫)'은 형용사로 중세 프랑스 구어로 쓰여졌음을 의미하는 '로망어'의, 명사로는 '소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로망(roman)'이란 말을 음차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민족어를 중심으로 한 언문일치와 소설의 발생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염두에 둘 때¹⁵⁾, 중세 프랑스 구어인 '로망(romanz)'이 곧 구어로 쓰여진 기사들의 연애나 무용(武勇)을 다룬 이야기를 지칭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추측하건대, 이 단어는 낭만주의(romanticism)이라는 서구 문예 사조의 유입과 더불어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비록 '낭만(浪漫)'이 음차이기는 하지만 '넘치는 물결'의 형상으로 낭만주의의 격정적 감정을 잘 드러내주기도 한다.

'낭만'의 원래적 의미인 '로맨스'라는 이름을 얻게 된 최초의 문학 형식은 중세 기사문학이며, 이 역사적 양식의 문학은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낭만'의 의미역에서 그리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다. 하우저는, 연애를 찬미의 대상으로 삼아 사랑은 아끼고 가꾸어야 하는 것이라는 감

15)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윤형숙 역), 나남, 2002. 참조.

정과 애인들이 서로 결합되느냐 못 되느냐를 지켜보는 긴장감을 낳았다. 는 점에서 기사문학이 과거의 문학과 비교해 새로운 문학적 효과를 성취하였다고 평가하였다.¹⁶⁾ 이렇게 사랑을 낭만적 광채에 휩싸이게 한 기사문학¹⁷⁾은 현재의 로맨스와는 완전히 다른 중세의 로맨스이지만 비현실성과 과도한 정서를 특징으로 하는 낭만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로맨스'는 연애 서사물을 지칭할 때 쓰이거나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라는 의미로 활용된다. 혹은 과도한 정서를 유발하는 비현실적인 사랑을 폄하하여 지칭할 때도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 논의하려는 '낭만적 사랑'이 곧 사전적 설명이나 기원에 대한 고찰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낭만적 사랑'은 사회학자인 기든스의 개념으로서 두 남녀가 자율적으로 애정을 느끼고, 결국 결합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되는 '낭만적 사랑'은 자명하고 보편적인 사랑의 공식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낭만적 사랑'은 근대의 시작과 함께 생겨난, 역사적으로 특수한 사랑의 형식이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애정을 느껴 관계를 발전시키고, 결합에 이른다는 낭만적 사랑의 관념은 비로소 사랑, 결혼, 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밀접하게 관련시켜 '연애 결혼'이라는 문화적 각본을 낳았다.¹⁸⁾

기든스의 논의를 따르면, 낭만적 사랑은 '열정적 사랑'과 '숭고한 사랑'의 복합체적인 속성이 있다고 한다.¹⁹⁾ 열정적 사랑은 상대방에게 첫

16) 이놀드 하우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근세편』(백낙청·반성완 역), 창작과비평사, 1994, 237-238면 참조.

17) "연애가 모든 선과 온갖 미의 원천이요, 일체의 더러운 행위, 일체의 비열한 감정은 사랑하는 부인(필자주: 기사의 부인이 아니라 귀족의 부인)에 대한 배신이라는 신념"이나 "감정의 섬세성과 내면성, 사랑하는 사나이가 그 사랑의 대상인 여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갖는 경건한 마음, 끝날 바가 없고 채워지지 않으며 또 한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채워질 수도 없는 사모의 정", "아무리 참담한 실패를 겪더라도 최고의 기쁨으로 남아 있는 사랑의 행복"(이놀드 하우저, 앞의 책, 238면) 등의 다채로운 낭만적 정서가 기사문학의 특징이다.

18) 사랑을 느껴 결혼을 하고, 가정에서 성적, 정서적 만족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앤소니 기든스,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1994, 32면 참조.)

19) 앤소니 기든스,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배은경, 황정미 역), 새물결, 1995, 81-95면 참조.

눈에 반해 눈이 멀어버리는 사랑이다. 소위 “사랑에 빠졌다”는 말은 열정적 사랑의 특징을 잘 말해준다. 서로에게, 혹은 상대에게 맹목적이 되어 버린 주체를 다른 인간 관계나 일상적인 책무로부터 단절시키는 열정적 사랑은 대부분의 문화에서 인간을 나약하게 하는 일종의 ‘열병’처럼 취급되었다. 또 사랑하는 상대를 이상적으로 미화시키는 열정적 사랑은 급작스럽게 시작하고, 황급히 끝나는 속성이 있다. 이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차원의 개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숭고한 사랑’이다. 유럽의 경우, 낭만적 사랑은 기독교도로서 신에 대한 헌신(숭고한 사랑)이라는 윤리를 통해 귀족 사회에서 혼외적인 ‘열정적 사랑’이 가지고 있는 충동적이고 예로틱한 성격을 배제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숭고한 사랑은 열정적 사랑의 긴박함을 누그러뜨리고, 사회적으로 순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낭만적 사랑은, 충동적이며 욕정과 구별하기 힘든 열정적 사랑과 다르며, 탈속적이며 신성한 숭고한 사랑과도 다른 새로운 것으로 형성되었다. 즉, 낭만적 사랑은 열정적 사랑에서 단 한 사람에게만 빠지는 절대적 유일성과 숭고한 사랑에서 약속되는 영원성을 결합시켜, ‘유일무이한 대상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라는 관념이 된 것이다.

라트는 낭만적 사랑을 처음 만난 순간 사랑은 신의 계시처럼 영혼을 파고들고, 날이 갈수록 우정과 신뢰가 쌓여 일생의 사랑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제시하며, 낭만적 사랑은 종교적인 감정, 즉 그리스도교의 유산이 세속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⁰⁾ 이는 열정적 사랑이 숭고한 사랑의 광채에 휩싸여 보다 영속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서 낭만적 사랑이 발생하였다는 기든스의 논의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열정적인 사랑의 순화, 또는 종교적인 감정의 세속화로 설명되는 낭만적 사랑은 “시민적인 사랑”²¹⁾이라고 명명되기도 한다. 라트는 “마리아는 개인의 소유물, 시민 계급의 사유 재산이 되었고, 가장은 신의 사자, 곧 천사같이 순결한 아내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라며 서구 시

20) 볼프강 라트, 『사랑 그 딜레마의 역사』(장혜경 역), 1999, 158-159 참조.

21) 볼프강 라트, 앞의 책, 159면.

민 사회에서 종교적 감정이 세속화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내었다. 이처럼 시민적인 가족 관계의 윤리와 이상을 제공하는 '낭만적 사랑'은 가족이나 신분이라는 외적인 요소가 배제되어 있으면서도 결혼을 전제한 진지하며 자율적인 형태의 사랑이라는 점에서, "시민적 가족관계의 원형인 핵가족의 모랄에 근거가 되는 것, 곧 근대적 감정생활의 근거점이며 근대성의 모랄의 한 핵심"²²⁾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³⁾

요컨대 '낭만적 사랑'은 근대적인 사랑의 형식으로서, 어느 정보 보편적이라 여겨지는 '열정적 사랑'에 종교적 광채를 부여하는 '숭고한 사랑'의 영향으로 생겨났으며, 일부일처의 결혼 제도를 윤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념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언중들에게 '낭만적 사랑'이 과도한 정서를 유발하며, 비현실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는 애정을 느낀 두 남녀가 결혼을 하여 평생 동안 사랑에 빠진 척 살아가라는 '낭만적 사랑'의 관념이 제시하는 지나친 요구에 대해 과도한 정서성(유일무이한 대상에 대한 절대적 사랑)과 비현실성(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지적한 것으로도 이해된다.

두 사람의 자발적인 애정 관계가 발전하여 결합에 이른다는 '연애결혼'의 문화적 각본을 제공하는 낭만적 사랑은 '자율성'과 '서사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 특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낭만적 사랑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두 남녀의 결합이 반드시 타의나 관습이 아닌 자발적인 애정에 근거

22) 서영채, 「한국소설과 근대성의 세 가지 파토스」, 『문학동네』(1999. 여름호) 참조.

23) 서구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가 다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관념은 자생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후기에 애정소설을 통해 낭만적 사랑이 어느 정도 자생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나, 이는 발생기의 모습을 밝히는 것일 뿐,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관념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 서구적인 관념의 낭만적 사랑은 1920년대에 신여성들의 등장 배경으로 나타났으며, 이광수의 '자유연애론'은 서구의 낭만적 사랑의 관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이념 차원에서 주창되기 시작하였음을 알리는 문화적 표지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에도 서구식의 낭만적 사랑의 시민 윤리가 완전히 정착한 것이 아니다. 여전히 결혼에서 가족의 동의가 중시되고 있으며, 계급이나 경제적 배경이 다른 두 남녀가 결합하는 일이 드물다는 현실은 우리의 낭만적 사랑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서구식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기도 한다.

해야 한다는 것은 낭만적 사랑의 전제이다. 자발적인 애정이 두 남녀가 결합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오랜 동안 결혼은 두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두 집단 간의 결합이거나 아이를 낳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졌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반적이다. 사회적 관습이나 타의가 아닌 스스로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사랑은 사랑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을 요구한다. 이 자율성은 “개인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림으로써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 심사숙고, 판단, 선택, 실행할 수 있는 능력”²⁴⁾이라고 정의된다. 자율적으로 사랑할 유일무이한 대상을 선택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관계의 결말도 당사자들에 의해서 초래된다는 점으로 인하여 낭만적 사랑은 ‘자율성’을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낭만적 사랑의 두번째 특성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서사성’이다. 어원적으로도 살펴보았듯이 ‘낭만’이란 소설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다. 앞서 낭만적 사랑은 열정적 사랑과 숭고한 사랑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열정적 사랑으로 인해 상대에게 눈이 멀어 버리는 상태, 즉 상대를 이상화시키는 상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차원, 즉 종교나 이념의 차원으로 열정적 사랑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낭만적 사랑은 열정적 사랑처럼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대상과 오랜 기간(혹은 영구불변한)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자발적인 애정을 통해 형성되어,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검은 머리가 파뿌리될 때까지” 지속성을 보장받은 낭만적 사랑은 개인의 삶에 서사를 도입시킨다. 이는 자율성과도 관련시켜 설명할 수 있는데, 스스로의 실천에 의해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 결말을 초래해야 하는 낭만적 사랑은 미래에 대한 전망 아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변화시킬 이야기를 만들어내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낭만적 사랑은 “심리적 안전의 한 형태이자 또한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잠재적 통로”²⁵⁾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4) 앤소니 기든스, 앞의 책, 69면.

25) 앤소니 기든스, 앞의 책, 86면.

이렇게 낭만적 사랑은 '자율성', 즉 개인 자신의 선택과 실천을 중시하며, 개인의 삶에 타자를 삽입시켜 이야기를 구성하는 '서사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이어지는 장에서는 조선후기 대표적인 애정소설인 춘향전과 인지도 높은 만화가들의 순정만화를 대상으로 '낭만적 사랑'의 초기 형태와 그것이 지속되고 변용된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4. 춘향전과 순정만화에 형상화된 '낭만적 사랑'

(1) 춘향전에 나타난 '낭만적 사랑'의 초기적 양상

춘향전은 대표적인 조선 후기의 애정소설이다. 애정소설은 두 남녀가 서로 애정을 느껴서 결합을 성취하는 내용을 다룬 소설로서, 모든 사랑 이야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등장한, 애정 문제를 다룬 일련의 소설들을 의미한다. 조선 후기 애정소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생과 양반의 애정 문제를 다룬 '기녀신분갈등형' 소설이다. 박일용은 "양식화된 서사로서 애정소설이 조선 후기라는 역사성과 사회성 아래 발생"하였으며, 애정소설 가운데에서도 "양반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적 욕구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는 비천한 신분인 여주인공의 상황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주인공의 의지가 주동적으로 떠오르게 되어 '기녀신분갈등형 애정소설'이 애정소설 흐름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²⁶⁾

실로 조선 후기 애정소설은 이전 시기 가문을 유지하고 번영시키기 위한 혼인과 일부다처제의 관습에 따른 남성 주인공의 여성 편력기와 사뭇 달라지는데, "애정소설에서는 기녀와 양반처럼 정상적인 부부가 되기 어려운 남녀가 이해타산을 떠나서 애정 때문에 결합하고 시련을 겪는"²⁷⁾ 집에서 그러하다. 이렇게 특정 시기에 유사한 양식과 내용의

26) 박일용, 『조선시대 애정소설』, 집문당, 1993, 16면.

소설이 다량으로 양산되고 수용되었던 현상은 사회·문화적인 변화의 징후이기에 문제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애정소설 중 가장 잘 알려진 춘향전²⁷⁾을 '낭만적 사랑'의 관념을 제공하는 문화적 텍스트로 삼아, 근대적 가족 제도가 확립되기 이전, '낭만적 사랑'의 기원적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랑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사랑을 하여, 결국 어떻게 되었나는 것이라 할 때, 주인공이 자질이 어떠한지, 또 남녀주인공이 나누는 사랑은 어떤 성격인지, 그 사랑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는지가 중요하기에 주인공, 사랑의 성격, 사랑의 결말을 중심으로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① 주인공으로서 양반 재자(才子)와 기생 가인(佳人)

춘향전을 비롯한 대다수 애정소설의 주인공들은 모두 재자와 가인이다. 두 남녀 주인공 모두 잘 생기고, 재주가 뛰어난 것이 특징적이다. 춘향전에서 춘향은 “회향이 무쌍이요 인자호미 기린”, “서칙의 취미호야 예모 정절을 일삼”는 윤리적 자질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데에다 방자가 소개하듯 “금천하지결식”의 인물이다. 몽룡은 “풍치는 두목지”, “도량은 창허 갖고 지혜 활달하고 문장은 이뵈이요 필법은 왕회지”, 또 그 얼굴은 “옥안석풍 고흔 얼골”을 가졌다. 이렇게 춘향전의 주인공들이 그야말로 재자가인이라는 것은 대중소설의 공식²⁹⁾이라고도 설명되지만 사랑하는 대상을 특별히 이상화시킨다는 점에서 낭만적 사랑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낭만적 사랑은 대상의 이상화를 요구한다. 현실에서 낭만적 사랑이

2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1997. 참조.

28) 춘향전의 여러 이본 중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다룬 것은 완판84장본인 〈열녀춘향수절가〉이다. 이하 논의에서 춘향전이라 지칭되는 것은 이 이본을 의미한다. 인용문의 장수도 이에 따라 표기하였다.

29) 임성래, 「연애소설의 관점에서 본 〈춘향전〉」, 『매지논총(17)』, 1999. 이 연구에서는 춘향전을 대중적 연애소설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으나, 본격적으로 애정 문제에 천착하기보다는 춘향전의 대중문화적인 속성을 위주로 논하였다.

상대방인 평범한 남녀를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이상화시키는 현상은, '제 눈에 안경', 혹은 '눈에 콩깍지가 씌였다' 등의 상투적 표현이 있을 정도로 보편적이다. 그렇게 자신의 상대를 이상화시키는 과정이 낭만적 사랑의 시작이 되는데, 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재자가인(才子佳人)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여기에서 남녀 주인공이 각각 양반과 기생이라는 점에 주목해보자. 이러한 신분의 주인공들은 기녀신분갈등형 소설이라고 분류된 주류 애정소설에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일용은 "기녀라는 신분은 서민층과 가까운 천민층이었기 때문에, 신분제도의 질곡에서 허덕이던 하층민은 자신들의 신분문제를 이들 기녀의 상황과 의식에 투사하여 심미적인 즐거움을 누리기에 유리하였다"³⁰⁾고 하였다.

기생이 주인공이 되는 것은 대중적 연애 소설의 공식과도 어느 정도 통하는 면이 있다. 신분이 낮고 천한(혹은 평범한) 여주인공이 신분이 높고 고귀한 남자주인공의 마음을 사로잡아 결국 사회의 공인을 받는 결합을 이루는 내용이 여전히 반복되는 대중적 연애 서사물의 공식이라고 할 때, 인기가 있으려면 여주인공은 신분이나 지체가 낮아야 하고, 남주인공은 높아야 한다. 또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서사 진행의 흥미가 진진하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다수의 독자가 자신을 투사할 대상으로 여주인공을 삼을 때 하필이면 왜 기생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문제는 평범한 여성과 양반 남성의 사랑을 다룬 소설에서 평범한 독자가 감정이입이 더 쉽지 않았을까, 혹은 신분의 차이를 더욱 크게 벌려 예컨대 백정의 딸과 양반의 사랑은 더욱 극적이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낭만적 사랑'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명하려 할 때 참고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설명이다. 기든스에 따르면 '낭만적 사랑'은 귀족 사회에서 처음으로 생겨났다고 한다.³¹⁾ 귀족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이 혼외의 정서적,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구의 귀족 사

30) 박일용, 앞의 책, 21면.

31) 앤소니 기든스, 『현대사회학』(김미숙 외 역), 을유문화사, 1994, 35면 참조.

회에서 결혼과 낭만적 사랑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냉랭한 것이기 일쑤였다고 한다. 그들은 큰 저택에 살면서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침실을 쓰고, 각자의 하인을 부리면서 들만 따로 만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귀족이건 서민이건 결혼에 대한 결정은 가족에 의해 내려졌고, 본인은 자신의 결혼 문제에 대해 발언권이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결혼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시대 결혼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의 분리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남녀가 내외하는 법도는 가옥 구조에도 영향을 주어 부부일지라도 각기 다른 공간에서 생활해야만 했는데, 여자는 안채, 남자는 사랑채에 각각 따로 기거하는 것이 예의였다. 부부일지라도 내외가 함께 있는 경우를 집안의 다른 사람들이 보아서는 안 되었다고 한다. 어릴 적부터 여자는 사랑채에 접근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으며, 남자 역시 중문 안의 안채에 드나드는 것이 점잖지 못한 일로 훈련을 받았다.³²⁾ 이런 상황에서 혼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양반과 기생이라는 사회적 관계에서만 낭만적 사랑이 그나마 가능했던 것이다.³³⁾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재자와 가인이 각각 양반과 기생이라는 신분이라는 것은 조선 후기의 낭만적 사랑을 그리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임을 이해할 수 있다.

② 열정적 사랑의 이념적 승화

애정소설의 주제는 '애정'이다. 애정소설에서 중요한 점은 두 남녀 간의 정서적 소통을 절절히 그려내는 것, 이를테면 '감정의 드라마'를 펼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애정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 유발된 주인공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32) 정성희, 『조선의 성풍속』, 가람기획, 1998, 63면 참조.

33) 물론 양반과 혼외적 관계를 맺는 것은 기생뿐만이 아니었다. 양반이 여종을 성적으로 범하는 일은 공공연한 사회적 관행이기도 하였다. (정성희, 앞의 책, 146-147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관계는 '애정'보다는 '욕정'을 바탕으로 하기에 낭만적 사랑의 특성이 정서적 교류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춘향전은 판소리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유진한(柳振漢)의 <만화본(晩華本) 춘향가>에서부터 “삼건기사(三件奇事)”라고 소개될 만큼 만남과 헤어짐, 재회라는 핵심적인 사건이 중시된다. 애정 문제에 초점을 두고 보았을 때 만남, 헤어짐, 재회라는 서사적 구도만큼 극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구도는 주인공들의 애정을 드러내는 데 적합한 형태를 띤다고 할 수 있다.

춘향전에서 만남은 단옷날 광한루에서 이루어진다. 광한루에 구경을 하러 나온 몽룡은 춘향의 그네 뛰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³⁴⁾ 춘향 역시 이도령을 보고 첫눈에 매력을 느껴 고개를 들지 못한다. 이들은 이렇게 첫눈에 서로에게 반해 애정을 품게 된다. 그리고 그 날 밤 이들은 백년가약을 맺고 첫날밤을 치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사랑이 찰나적인 매혹으로 인한 열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을 했다는 사실이다. 몽룡은 춘향모 앞에서 “자네 쌀 춘향과 빅연언약을 밋고자”(춘46)한다고 자신의 뜻을 밝히며, 불안해하는 춘향모에게 “춘향도 미혼전이요, 나도 미장전이라 피차 언약이 이러하고 육예난 못할망정 양반의 자식이 일구어언을 할 이 있나”(춘47)라며 재차 다짐을 한다. 그러고 나서 춘향과 술을 나누어 마시며, “대례주”라고 칭한다. 이렇게 첫눈에 반한 연인은 서로의 애정을 지속할 것을 약속하고서야 성적인 결합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급작스럽게 만나 이루어지는 춘향전의 사랑이 열정적 사랑의 긴박함의 형태를 주로 띠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낭만적 사랑, 즉 보다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펼쳐지는 것은 가히 ‘열정’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랑이다. 열정적 사랑의 성향이 통상적인 사회적 책무를 무시하는, 즉 상대에게 눈이 멀어버리는 것이라 할 때, 세상과 절연한 듯한 춘향방에서 행해지는 사

34) 몽룡의 눈에 춘향은 “얼골이 조촐하니 청강의 오난 학이 설월의 빗침 갖고 단순호치 반기하니 별도 갖고 옥도 갖다. 연지를 품은 듯 자하상 고은 빗천 어린 안기 석양의 빗치는 듯 취근이 영농하야 문치는 은하수 물결갓다”(춘25)로 비취진다.

랑 놀음에 대해 “이팔이팔 두리 만나 밋친 마음 세월 가는 줄 모르던가 부더라”(춘73)라는 서술자의 논평은 열정적 사랑의 특성을 잘 드러내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사랑이 이렇게 열정적으로만 일관한다면, 낭만적 사랑의 각본은 완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춘향의 사랑이 열정적 사랑에서 낭만적 사랑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열정을 신념이나 이념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변화가 요구되는데, 그 변화는 몽룡과 춘향의 이별 장면에서 그려진다. 춘향은 처음에 치마를 찢고 세간을 던지며 몽룡에게 패악을 부린다. 열정적 사랑이 깨어지는 충격으로 인해서이다. 그러나 이별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이자 곧 태도를 고쳐 몽룡을 고이 떠나 보낸다.

이에 대해 김대행은 춘향이 “현실로서가 아닌 이념이나 신념 상태의 것으로라도 지금까지 누려왔던 가치를 지속시키고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현실적으로는 변화가 왔지만 심리적으로는 무변화의 상태”라고 지적하였다.³⁵⁾ 이 과정에서 몽룡은 “장원급제 출신해야 너를 다려 갈 거시니”(춘89)라고 후기약을 단단히 하고, 춘향도 자신은 “너오 정절 독숙공방 수절”할 것을 다짐한다. 이 때 춘향의 수절은 보편 윤리로 강요되는 ‘열(烈)’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에 바탕을 둔 선택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부터 변치 않는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는 주인공들의 자질로서 ‘신의’가 문제가 되며, 춘향에게 훼손할 것을 명하는 변화도는 춘향의 ‘신의’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는 것이지, 신분차별적인 지배질서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충실한 것만은 아니다.³⁶⁾

35) 김대행, 「인간의 두 얼굴과 문학적 흥미」, 『시사 시학 연구』, 이대출판부, 261면 참조.

36) 이러한 해석은 춘향의 저항적 성격을 강조하는 논의들과 차이점을 지나나 인간의 심리적 방어기계에 기대어 춘향의 일관성을 설명한 김대행의 논의와 맥이 닿아 있다. “말하자면 변화도는, 처음 이도령이 춘향에게 새로운 가치에로의 변화를 유도했던 것 만한 정도는 물론 그것을 상쇄할 만한 합리화의 구실이나 계기를 마련해주지 못했으며 치환이라든가 도피의 출구를 마련해 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무변화를 지향하는 춘향이 보일 수 있는 것은 지속되어 온 가치의 고수를 이념화하는 일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심리가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 拒逆官長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김대행, 앞의 책, 262면.)

앞서 설명하였듯이 낭만적 사랑은 열정적 사랑과 숭고한 사랑의 결합에서 발생하였다. 낭만적 사랑이 사랑의 영원성, 즉 지속성에 대한 믿음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때, 열정에서 비롯된 사랑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념적으로나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장해 줄 숭고한 사랑의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화된 대상과 열정적 사랑에 빠진 춘향이 열정을 숭고로 변화시키기 위해 끌어쓴 것은 유교적 윤리인 열(烈), 수절 관념이었다. 이러한 특성은 서구의 경우와 비교되는데, 서구에서는 유교 윤리 대신에 '크리스차니티(christianity)'라는 종교적 관념이 도덕적 가치들과 밀접히 연관된 사랑의 이상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신을 알기 위해서 신에게 헌신하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성취된다는 관념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신화적 통일성의 일부를 이루었다는 것이다.³⁷⁾ 이렇게 숭고한 사랑의 관념이 개입됨으로써 열정적 사랑의 일시적 이상화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보다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이상화와 겹쳐지면서 낭만적 사랑에 대한 서사가 가능해졌으며, 열정을 이념의 차원으로 승화시킨 춘향전은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③ 결혼을 통해 완성되는 '낭만적 사랑'의 각본

춘향이 이념적 차원으로 열정적 사랑을 승화시킨 까닭에 춘향전은 낭만적 사랑의 궤도에 안정적으로 놓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낭만적 사랑은 열정적 사랑과 같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수는 있어도 열정적 사랑처럼 갑자기 파국으로 치닫지 않는 지속성이 있다. 이 지속성은 열정적 사랑이 숭고한 사랑과 결합하여 보장되는데, 개인의 삶의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나타난다.

춘향은 처음부터 몽룡이 공명을 누릴 것임을 직관적으로 감지하였으며³⁸⁾, 장원급제하여 데리러 온다는 몽룡의 말에 위안을 얻기도 하였

37) Niklas Luhmann, *Love as Passion*, Cambridge, 1986, ch. 5, 참조.

38) 춘향이 몽룡을 처음 보았음에도 그가 출세할 것임을 간파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이도령을 살펴보니 급제의 호걸리요 진세간 기남자라. 천정이 놀파스니 소연공

다. 이를 낭만적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춘향은 일종의 자신의 삶에 대한 서사를 갖는다는 것이다. 즉, 춘향은 몽룡에 대한 현재의 감정과 더불어 출세할 몽룡의 배필로서 미래의 자신에 대한 계획을 갖는다. 광채 없이 거지 행색으로 옥중에 찾아온 몽룡을 보고 자신이 다음날 죽을 것을 예상한 춘향은 몽룡에게 자신의 시신을 부탁하며, “압남산 뒤남산 다 바리고 한양으로 올여다가 선산발치의 무더”(춘159)줄 것을 부탁한다. 죽어서라도 몽룡의 배필이 되어 선산에 묻히고 싶은 춘향은 대단한 집념의 소유자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춘향은 살았든 죽었든 몽룡과 결합할 것이라는 자기 로맨스의 결말을 미리 쓰고 있었던 것이다.

춘향이 그렸던 자신의 서사대로 춘향전의 이야기는 전개되어 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 춘향을 구원하는 것은 주지하는 결말이다. 이 결말은 춘향이 꿈꿔왔던, 즉 춘향이 자율적으로 계획해 왔던 낭만적 사랑의 완성으로서 의의가 있다. 춘향전을 조선 후기 신분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 소설로 파악하는 논의가 많으나³⁹⁾ 춘향의 변화도에 대한 저항을 ‘민중적 저항의식의 발현’이라고 해석하고, 천민에서 ‘정열부인’으로의 신분 상승을 ‘민중적 꿈의 투영’이라고 하기에는 애정문제를 중심으로 서사를 진행시켜오던 줄거리가 무색해지는 측면이 있다. 춘향전의 행복한 결말은 낭만적 사랑의 각본이 완성되는 것이라 보는 것이 이 연구의 시각이다.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애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영구히 지속시킬 목적으로 결혼하게 되는 근대적인 사랑의 각본이 춘향전을 위시한 애정

명할 거시오 오악이 조귀하니 보국충신 될 거시미 마음의 흠모하야 익마을 수기고 엄실 단죄뿐이로다”(춘26)

- 39) 몇 가지 대표적인 연구물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춘향전 연구의 선편을 잡은 김태준은 춘향이 주장한 것은 “정절보담 인격”이라고 논하면서 춘향의 수절 문제를 ‘개성에 눈뜸’, ‘민중의 자유 주장’과 연관지었다.(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1) 조동일은 춘향전의 주제를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로 나누고, ‘열녀’라는 유교적 교훈을 표면적 주제로 보고, 신분적 제약을 벗어나 ‘인간적 해방’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이면적 주제로 보았다.(조동일, 『감동에서 본 춘향전의 주제』, 『계명논총 7』, 1970) 박희병 역시 춘향전 사랑의 사회성을 중시하여 춘향과 몽룡의 “신분적 차이”와 “양반 관료에 대한 저항”에서 사회적 의미를 찾았다. 그는 “춘향의 항거는 서민계층의 의식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사회성을 띠게 되었다.”고 한다.(박희병, 『춘향전의 주제』, 『한국 문학사의 쟁점』(장덕순 외), 집문당, 1986)

소설에서부터 제공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순정만화에 나타난 '낭만적 사랑'의 지속과 변화

주로 여성 독자들이 읽는 순정만화는 '순정(純情)'이라는 만화의 하위 장르에 대해 붙여진 명칭처럼 지고지순한 연애의 감정을 밀도 있게 다루고 있다. 교양인들에게 문학에 대한 지식과 소양이 의사소통의 중요한 코드로 작용하듯이 순정만화는 여성 청소년들이 자기가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문화적인 자원이 된다. 순정만화의 낭만적 사랑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든 그것을 아름답게 생각하든 순정만화가 이들이 형성하는 해석 공동체 내에서 주요한 텍스트로 취급받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순정만화의 분석대상 텍스트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고려한 것은 만화가의 인지도이다. 강경옥, 원수연, 이미라 등의 작품은 80년대에서 90년대에 연재를 시작하거나 초판 단행본이 발행되었지만 만화를 보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전히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애장판을 가지고 싶어하는 적극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재간행될 정도로 현재까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분석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으나, 오랜 기간 필자가 읽어오며 익혀 온 순정만화 장르의 관습(convention)이나 순정만화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적인 관념에도 상당 부분 의존하였음을 밝힌다.

순정만화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상화된 주인공들과 두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인 애정 관계를 보장하는 결말을 갖는다는 낭만적 사랑의 큰 틀을 따라 그려지는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겠다. 논의의 과정에서 앞서 춘향전을 대상으로 한 분석 내용을 환기하며 그것과 비교하여 순정만화의 특수성을 언급할 것이다.

① 주인공으로서 '꽃미남', '꽃미녀'



애정소설의 주인공들이 재자가인(才子佳人)이었던 것처럼 순정만화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꽃미남', '꽃미녀'라 불리는 미소년, 미소녀들이다. '꽃'이라는 말은, 칸을 넘어서도록 클로즈업시킨 남녀 주인공의 그림 뒤에 꽃잎이 흩날리는 배경을 그려 넣은 설정에서 연유하였다. 이렇게 지칭에서부터 꽃미남, 꽃미녀인 순정만화의 주인공들은 재자가인만큼이나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반할 만한 미덕을 가지고 있다.

남성의 경우, 화려한 외모에 어딘지 모르게 우수가 서려 있는 그림체가 많다. 이 우수는 과거 연애험의 상처나 가정 문제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⁴⁰⁾ 그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 그는 돈이 많은 집의 아들이거나 머리가 월등히 좋으며, 둘을 겸비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남성 주인공은 거의 완전한 남성인데 사소한 문제가 있을 뿐이다.

이미라의 〈인어공주를 위하여〉에 등장하는 남성 주인공인 '서지원'(그림 참조)은 빛나는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잘 생기고 우수 어린 남성 주인공이다. 그는 소위 '불량 씨클'의 장으로서 카리스마가 있지만, 자료 그림에서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능력으로 공부도 잘 한다. 또 그는 남녀공학에 다니면서 여학생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성에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여성 주인공 역시 '꽃미녀'로 그려지지만, 대부분의 텍스트 내에서는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매력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평범한 여성이라고 소개된다.(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경우는 대

40) 만화계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트라우마(trauma)'라고 부른다. 만화가들은 주인공의 우수 어린 분위기를 창출하며, 과거의 숨겨진 진실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소위 '트라우마'를 많이 활용한다.

개 악녀로 등장한다.) 이러한 여성 주인공은 남성의 작은 결함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서 닫혀 있는 남성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 본래의 따뜻한 성품을 되찾게 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는 순정만화의 여성 주인공이 보살핌의 미덕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특성은 여성적 정체성의 반영으로도 파악된다. 여성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입각하여 규정하며, 여성 자신의 업적은 타인을 돌보는 능력에 비취서 평가하는 성향⁴¹⁾이 순정만화의 여성 주인공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순정만화에서는 이렇게 보살핌의 미덕을 갖춘 여성이 등장하여 여성이 바라는 이상적 남성을 완성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순정만화의 서사적 즐거움을 따를 읽을 때에는 '백마 탄 왕자'가 평범한 여성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독해를 할 때에는 오히려 여성이 남성의 결함을 채워주며 감정적 생활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⁴²⁾

덧붙여, 모습만으로는 금발처럼 보이는 머리, 긴 팔과 매끈한 다리와 큰 키, 십등신은 되어 보이게 하는 '조막만한 얼굴'을 가진 '꽃미남', '꽃미녀'에 대하여 '서구적인 신체형'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서 전혀 성적인 매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남성 주인공의 팔, 다리는 여성의 것만큼 매끈하며, 털이나 근육 같이 남성성을 보여주는 기호들은 모두 제거되어 있다. 또, 여성 주인공은 대부분 뻘뻘 말라 육감적인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데, 이는 남성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만화의 '글래머 체형'의 여성과 대비된다. 또 이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41) Carol Gilligan은 남자와 여자는 심리적으로 다르며, 이 차이가 도덕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여성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남성은 개인적인 성취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다. 여성의 도덕성은 배려를 기준으로 하며(morality of caring), 남성의 도덕성은 정의(morality of justice)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다. (Carol Gilligan,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42) 이런 점에서 순정만화가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재생산한다는 비판은 재고할 만하다.

욕정을 느끼거나 성적 충동을 드러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단지 '키스' 정도의 장면을 상상하고, 얼굴을 붉히는 정도이다. 이렇게 성애적 요소가 제거된 주인공들의 모습은 이상화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극단적인 예는 대부분 순정만화의 주인공들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징표인 '콧구멍'이 없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⁴³⁾ 이렇게 육체성을 제거한 관념적 이상이 '꽃미남', '꽃미녀'로 형상화되었다면, '꽃'은 '아름다움'이라는 의미 외에도 '동물성'과 대척적인 의미를 갖는다.⁴⁴⁾

요컨대 순정만화의 주인공인 꽃미남, 꽃미녀들은 그 지칭에서 알 수 있듯이 아름다우며, 남성은 능력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은 보살핌의 미덕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춘향전의 주인공들처럼 서로에게 성적 매력을 강하게 느끼지 않는다. 순정만화의 그림체에 성적 의미를 지닌 기호들이 상당부분 축소·생략됨은 꽃미남, 꽃미녀들이 관념적 이상의 산물임을 말해준다.

② 성찰을 통한 사랑의 확인

순정만화는 감정의 만화이다. 애정소설과 마찬가지로 남녀주인공에게 닥치는 사건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는 것보다 사건을 겪으며 변화하는 주인공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것이 순정만화의 미덕이다. 애정소설과 비교하였을 때, 순정만화에서는 주인공의 정서 변화 중 만나서 사랑을 확인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밀도 있게 그려지는 것이 특징적이다. 춘향전의 경우, 춘향과 몽룡이 만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백년가

43) '코'는 만화에서 중요한 기호로 다루어지는데, 요모타 이누히코(四方田大彦)는 『만화원론』에서, 코는 등장 인물을 특권적인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하였던 60, 70년대 일본만화에서는 높고 날카로운 코가 유행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80년대 주인공들에게 열혈의 풍모가 사라지면서 코가 낮아졌다고 지적하였다. (요모타 이누히코(四方田大彦), 『만화원론』(김이랑 역), 시공사, 2000.)

44) 꽃미남을 즐기는 취향은 순정만화 내에 '꽃미남물'이라는 하위 장르를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꽃미남물'은 '야오이'라고도 불리는데 꽃미남들이 서로 좋아하는 동성애를 소재로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류는 '동성애'에 대한 만화라기보다는 꽃미남에 대한 만화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독자들은 아름다운 꽃미남이(애정의 대상을 불문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다.

약을 하고 첫날밤을 가진 것에 비하여 두 사람이 사랑을 확인하기까지 서사 진행은 매우 느리다.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사랑을 확인하는 데에서 끝나는 텍스트도 많이 있는 형편이다. 주로 학원물이 그러한데, 현실적으로 이들의 사랑이 결혼으로 실현되는 것은 당분간 유보되기 때문이다. 또 연애 감정을 지속시키는 느린 서사 진행을 위해서 여자 주인공은 소위 '왕둔치'가 되는 것이 유리한데, 자신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사랑에 빠진 남성 주인공의 심리를 영똥하게 파악하여 오해를 하는 에피소드들이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감정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순정만화가 만남과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을 중시하다보니 이들이 이별이나 시련을 겪으면서 성숙해가는 과정이 춘향전만큼 극적이게 그려지지 못하는 것도 애정소설과 비교하였을 때의 특성으로 들 수 있다.

순정만화에서는 첫눈에 반해 상대방에게 완전히 빠져드는 맹목적인 '열정적 사랑'이 없다. 아무리 꽃미남으로 그려져도 여주인공들은 처음부터 남성 주인공에게 빠져들지 않는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에 대한 내 감정은 어떤 것인가' 등등을 생각하며, 남성 주인공의 주변에 있는 여성을 그의 연인으로 오해를 하기도 하고, 여성 조연들의 충고에도 귀를 기울이며 끊임없이 관계에 대해 생각한다.⁴⁵⁾ 엇비슷한 오해와 이해를 되풀이하는 과정⁴⁶⁾을 거쳐 처음에는 자신의 세계에 갇혀 타인과 관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던 '왕둔치'인 여성 주인공이 점차 관계와 감정의 세계를 알아가게 된다.

일상적인 느낌을 잘 포착하며, 심리 묘사가 뛰어난 작가로 평가되는 강경옥의 만화는 이와 같은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⁴⁷⁾ <라비험폴리

45) 그래서 순정만화에서는 글이 말풍선이 담겨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속마음을 그럴 때 말풍선 밖에 글을 활용하기도 하는 이러한 설정은 순정만화가 인물의 내면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46) 이 과정에서 주요한 서사적 장치로 쓰이는 것이 무수한 '다각 관계'이다. 좀더 극적인 장치로는 '기억 상실'도 있다.

47) 강경옥 만화의 주인공들은 눈이 크다. 별빛을 담고 있는 듯 미묘한 빛으로 주인공의 내면을 그려내는 것도 강경옥이 심리 묘사에 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는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한 만화지만, 그 주인공의 감정은 현재의 독자들도 충분히 공감 가능한 것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하이아와 리안은 기존의 관계를 버리고 연인이라는 관계로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감정의 단련을 거친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이아는 “악의적인 행동을 이해하는 것, 사랑으로부터 도망치는 행위를 이해하는 것,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로써 하이아는 “자신을 진정한 사랑으로 이끌어 줄 뿐 아니라, 자신의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⁴⁸⁾ 이렇게 성숙해 가는 감정이라는 감정적 차원의 즐거리를 내부에 간직한 강경옥의 만화는 “궁극적으로 ‘러브스토리’가 아닌 것도 아니지만, 그것만이라고 하기엔 뭔가 많이 허술하다는 듯한 느낌”⁴⁹⁾을 들게 한다. 그렇지만 자율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써나 가야만 하는 ‘낭만적 사랑’은 관계나 자신의 감정에 대한 성찰적인 태도를 요구하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강경옥의 만화는 전형적인 로맨스를 탈피하는 것이 아니라 로맨스의 한 가능성을 발전시킨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 만화에서 남자 주인공은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때로 살아가는 가운데 ‘아아…… 이 사람과 만나서 잘됐다’라는 경우가 있어. 나에게 있어서는 네가 그 경우야……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다.” 이러한 고백은 그 대상이 반드시 이성일 필요가 없어 보이기도 할 정도로 일종의 동료애에 가까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열정적 사랑’으로 사랑을 확인하고, 이념적 차원으로 그 사랑을 지속시키는 춘향전과 매우 달라 보인다. 춘향전의 재자와 가인은 순식간에 결합을 이루었지만, 순정만화의 주인공들은 아주 천천히 결합하는데, 이는 ‘합류적 사랑(confluent love)’으로 사랑이 질적인 변화를 겪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로도 해석된다.

‘합류적 사랑’은 역시 기든스의 용어이다. ‘합류적’이라는 표현은 각기 따로 흘러오던 두 개의 지류가 합쳐져 하나의 강물처럼 함께 흐른다는

48) 박인하, 「라비험플리스: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배운다」, 『고구마(<http://goguma.comics.net>)』12호, 2002. 2.

49) 박인하, 앞의 글.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이 이미지는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두 사람의 정체성이 과거에는 각기 달랐음을 인정한 위에서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을 향해 사랑의 유대를 공유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협상해 가는 그러한 사랑”⁵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계를 탐색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심문하며 사랑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순정만화는 변화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관념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③ 성애적 요소가 빠진 '낭만적 사랑'의 각본

앞선 논의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순정만화에서는 전혀 성적이지 않은, 이상적인 주인공들이 감정(주로 연애 감정)의 드라마를 펼친다는 것이다. 이 드라마의 종착역은 대체로 남녀주인공이 결합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결혼은 안정적으로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는 안전한 제도로 여겨지기 때문에 독자들은 결혼한 후 생겨날 수 있는 무수한 문제들의 심각성은 잠시 잊고, 둘의 사랑이 결혼으로 안착한 것에 만족해한다. 그래서 결혼은 '로맨스의 끝'이 되는데, 문제는 결혼이 '생활의 시작'이기도 하다는 점에 있다.⁵¹⁾

실로 사랑의 지난한 확인 과정을 거친 결혼은 순정만화의 대단원이니 만큼 아름답게 그려진다. 연인의 밀고당기는 감정의 실랑이를 16권이나 되는 분량으로 펼쳐내고 있는 원수연의 <풀하우스>에서 주인공들의 결혼은 패션쇼장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화려하게 치뤄지기도 한다. 이 때 신부의 드레스는 낭만적 사랑의 상징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아이디어가 풍부한 디자이너가 만든) 엘리가 입었던 웨딩드레스는, 그날 끊임없이 웃음을 자아내는 아이디어를 보여, 최고의 피날레

50) 앤소니 기든스,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배은경, 황정미 역), 새물결, 1995, 116면 역자주 참조.

51) 일부 독자들은 결혼으로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어 버리는 듯 이야기를 끝내는 대다수의 순정만화에 대하여 순정만화를 주로 그리는 대다수 여성 작가가 결혼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결혼의 '쓴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는 작가가 몰라서 안 그린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한다.

로 사람들의 뇌리에 남"는 것이 된다.

결혼으로 끝나는 순정만화는 자발적으로 애정을 느낀 남녀가 '순수한 관계'를 지속시켜 결혼에 이른다는 낭만적 사랑의 공식에 맞는 듯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근대적 형식의 낭만적 사랑이 결합시켜 놓은 '사랑', '성', '결혼' 중, 성적인 요소가 거의 없다는 특성이 갖기도 한다. 순정만화에서 성애적인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만화에 대한 검열이고, 다른 하나는 성적인 결합보다 연애 감정을 중시하는 수용자의 성향이다.

순정만화에서 성애적인 장면은 윗통을 벗은 남성을 그리지도 못하게 하였던 80년대의 검열 제도 아래서는 아예 불가능한 것이었다. 현재에는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으나,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에 대한 제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화가들에게 완전한 표현의 자유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검열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현실에서 남녀가 함께 누워 침대에서 자고 있는 장면⁵²⁾은 비교적 파격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검열 때문에 성애적인 장면 묘사가 이루어질 수 없던 것만은 아니다. 여성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하이틴 로맨스'류의 연애 소설에서도 성애적 사건이 이루어질 순간에 갑자기 벽난로의 이끌거리는 불꽃이나 흔들리는 촛불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수용자의 성향이 이러한 성애적 장면을 거부한 것으로도 보인다. 앞의 예로 든 그림이 파격적이기는 하지만, 키스 장면 뒤에 이어지는 것은 나란히 누워 자는 장면이다. 거기에 덧붙여진 해설자의 설명은 "그들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부부가 되었다.", "종이꽃처럼 부서지는 아름다운 환영이 계속되었다.", "정말……비로소……사랑으로 일치된 두 사람의 감정의 물결이 풀하우스를 채우고 있었다." 등이다. 그렇게 성애는 "종이꽃처럼 부서지는 아름다운 환영"으로서 관념적 색채를 입고 있다.

이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 이전에 순정만화에서 제공하는 성에 대한 관념이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52) <풀하우스> 제16권 98-99면.

다음 글은 여성이 '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나예젠 그 강박관념 덕인지, 강간 다음으로 무서운 것이 섹스다. 고등학교 때가
지만 해도 난 섹스와 강간을 구별할 수 없었다.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섹스라고,
원하지 않았지만 정조를 잃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강간을 당한 여성들이 다시 피해를 보는 것일 게다. 어
썩든, 다른 사람들, 주로 어른들이 강간을 섹스라고 생각하고(정조를 잃게 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주의를 주었다면, 나는 섹스를 강간이라는 치명적인 폭력)이
라 생각하고 무서워했다. 나는 섹스를 무서워했으므로(사실은 대학교에 다니고 여
성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도 무서워한다) 섹스를 전제로 하는 듯한 연애를 두려워
했다.

-신딸기, 「순정만화에서의 강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도피 전략」
(<http://dalara.jinbo.net/webzine0>)

위의 고백은 남성의 성적 충동이 여성에 비해 자유롭게 실현되는 현
실에서 여성이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성에 대한 공포에 대한 것이다.
성에 대한 두려움이 한국 사회의 여성 청소년에게 보편적이라면, 연애
와 사랑을 다루면서 성애와 관련짓지 않는 순정만화는 여성의 성에 대
한 공포와 두려움을 건드리지 않는 전략을 취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
다. 이에 대해 순정만화가 성에 대해 낭만적인 관념을 심어준다고 비판
할 수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순정만화가 여성들의 공포심을 어느 정
도 완화시켜 주며 연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내는 '치유의 기능'
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순정만화는 '낭만적 사랑'의 문화적인 각본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랑', '결혼', '성'을 결합시켜 주는 낭만적 사랑의 각본에서 성
적인 요소는 생략·축소시키거나 낭만적으로 미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여성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성애보다는 연애를 더욱
중시하는 관념과 성애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5. '낭만적 사랑'의 형성과 변화

이 연구에서는 애정 문제를 다룬 서사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춘향전과 순정만화를 비교하면서 두 텍스트가 근대적 애정의 형식인 '낭만적 사랑'을 각각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통시적인 문화적 상황을 이해할 때만이 미래의 문화를 계획하고 전망할 수 있다고 할 때, 과거의 문화적 산물은 현재와 비교 대상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수평적 문화'와 '수직적 문화'⁵³⁾의 교직(交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동시대의 문화와 과거의 문화를 씨실과 날실처럼 얽히고 설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론이라는 제목을 걸고 있는 연구들이 나오는 추세이지만, 현재의 청소년들이 즐기는 대중문화에 대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과거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문화론적 연구를 하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현재의 학습자들이 현재의 문화를 이해하고 미래의 문화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고전문학교육 연구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과거의 문화와 현재의 문화를 엮어 짤 수 있는 계기를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문화교육의 내용이자 문화론적 탐구의 대상으로서 '낭만적 사랑'을 설정하였다. '낭만적 사랑'이라는 문화적인 관념은 수직적 문화와 수평적 문화를 교직시키는 그물코와도 같은 역할을 하며, 춘향전과 순정만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문화적 매개로 기능한다. 낭만적 사랑이라는 문화적 관념을 공유하고 있는 춘향전과 순정만화의 구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낭만적 사랑'이라는 문화적 관념의 한쪽 끝에는 춘향전이, 다른 한쪽 끝에는 순정만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춘향전은 낭

53) '수평적 문화'와 '수직적 문화'는 박인기의 용어를 빌려온 것이다. 박인기는 "일상의 현재적 소통 속에서 어떤 의미를 공유하고 언어와 생활의 양식을 공유하게 하는 과정과 현상"을 문화 유산이나 전통 중심의 '수직적 문화'와 구별되는 '수평적 문화'라고 상정하고, "일상의 가치 합리성, 기호적 상징에 대한 반응,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는 태도와 양식"을 교육 내용으로 삼기를 제안하였다. (박인기, 앞의 글.)

만적 사랑이라는 관념의 발생기적인 모습을 담고 있으며, 순정만화는 이 관념이 변화를 겪고 있다는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춘향전은 낭만적 사랑의 발생기 모습을 보여주는 문화적 텍스트로서 분석하였다. 춘향전의 주인공인 몽룡과 춘향은 재자와 가인이라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이는 사랑에 빠진 유일무이한 대상에 대한 이상화를 요구하는 낭만적 사랑의 영향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이들이 각각 양반과 기생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을 때, 낭만적 사랑이 혼외적인 관계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춘향의 애정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춘향전은 열정적 사랑과 숭고한 사랑의 복합체인 낭만적 사랑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 하룻밤 만에 성적인 결합까지 이룬 긴박한 열정적 사랑은 열(烈)이라는 이념적 차원으로 승화하면서 비로소 낭만적 사랑의 궤도에 안착할 수 있었다. 서구에서는 종교성이 열정적 사랑을 낭만적 사랑으로 변모시키는 숭고한 사랑의 관념을 제공하였지만, 우리의 경우, 유교 이념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춘향전은 열정적 사랑이 숭고한 사랑과 결합하여 '낭만적 사랑'의 관념이 형성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텍스트이다. 춘향전에서 사랑의 결말은 암행어사가 되어 나타난 몽룡이 춘향을 구하고 춘향과 결혼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말은 소위 '백마 탄 왕자'가 여주인공을 구원하고 결혼에 이르는 낭만적 이상이 투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각본은 춘향이 써간 자신의 서사이기도 하다. 유일무이한 애정 상대와 영원한 결합을 위해 결혼을 꿈꾸고, 현실화시킨 춘향은 낭만적 사랑을 자율적으로 완성시킨 인물이라는 의미에서, 연애결혼의 문화적 관념을 선구적으로 구현한 문학적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춘향의 저항적인 성격은 재해석될 수 있다. 춘향은 낭만적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전통적으로 사랑에 간섭하고 관여해 온 신분 제도와, 개인의 감정적인 삶까지 폭압적으로 제약하려 들었던 공권력에 대해 거역관장(拒逆官長)하며 맞선 것이다. 그래서 춘향의 사랑은 사회개혁적인 의미로 비춰질 수 있었고, 춘향은 근대적인

인간⁵⁴)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춘향전의 낭만적 사랑은 아직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전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인증(認證)을 받기 위한 쟁투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에 그 사회적인 의미가 부각되는 것이다.

춘향과 같은 선구적인 문화적 영웅의 활약 덕분에 '낭만적 사랑'이 문화적인 관념으로 공인을 받게 됨으로써 근대적인 의미의 낭만적 사랑은 역사적으로 성과 사랑(연애), 결혼이라는 세 범주를 결합시킨 새로운 관념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즉, 춘향전 이래,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애만이 아름다운 것, 결혼한 사람들의 성애만이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 결혼은 사랑의 지속을 보장해주는 제도라는 것 등등, 성, 사랑, 결혼이라는 세 범주의 다종다기한 결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낭만적 사랑의 관념은 현재의 순정만화에서 그대로 지속되는 것만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유일한 애정의 대상과 결혼을 통해 영원한 결합을 꿈꾸는 낭만적 이상은 대체로 유지되나 그 내부에서는 변화의 징후가 감지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변화가 낭만적 사랑이라는 문화적 관념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변화의 징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정만화에서도 주인공들이 이상화되기는 하지만, 보살피는 여성상이 부각되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는 여성이 감정적 삶의 영역에서 남성들보다 우수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 순정만화는 사건 위주의 서사적인 줄거리 속에 '관계와 감정에 대해 성숙해 가는 여성 주인공의 내면의 흐름'이라는 또다른 줄거리를 갖고 있다. 이는 춘향전의 '벼락'과도 같은 열정적 사랑이 사라진 상태에서, 관계와 감정에 대한 성찰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여전히 결혼으로서 끝맺는 순정만화가

54) 이상택은 춘향이 근대 사회로 이행해 가는 당대에서 게젤샤프트(이익사회)적인 인간 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춘향전의 사회사적 의미를 찾았다. (이상택, 「춘향전 연구」, 『국문학연구 3』, 서울대 국문학연구회, 1966.)

많다는 것은 결혼으로 사랑의 영원성과 아울러 미래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문화적 각본이 설득력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순정만화의 가장 특징적인 면모는 낭만적 사랑의 세 요소 중 '성(sex)'을 축소·제거시킨 데 있다. 여성이 성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갖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인지, 현재 한국 사회에서만 특수하게 존재하는지는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순정만화는 이러한 성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즐기는 대중문화인 '순정만화'는, '한갓 로맨스'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의 정서적 삶과 현재의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순정만화에서는 춘향전에서와 같은, 신분을 초월하여 상대방에게 눈이 멀어버리는 열정이 없으며, 따라서 열정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줄 이념도 없다. 그러므로 순정만화는 춘향전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성격을 많이 상실하였다고도 보인다. 순정만화의 비사회성은 낭만적 사랑이 이미 공적인 영역의 승인 아래, 사적인 영역의 문화적 각본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낭만적 사랑은 더 이상 공적인 영역과의 부딪침 없이 사적인 영역의 문제로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낭만적 사랑의 세 가지 범주 중, 순정만화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사랑'이다. 결혼이 여전히 유의미한 결말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순정만화에서는 연애 감정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 연애는 성애적인 요소를 축소·결핍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순정만화는 이미 근대적인 낭만적 사랑의 관념을 해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낭만적 사랑이 사랑, 결혼, 성이라는 서로 다른 범주를 한 데 합쳐 놓은 것이라면, 순정만화는 이 범주들을 다시 떼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대사회에서 결혼과 성이 중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랑, 결혼, 성이 개개인의 삶으로 통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화의 주인공들에 대해서도 수용자들은 '연애하고 싶은 남주인공'과 '결혼하고 싶은 남주인공'을 나누어 생각할 정도로 연애와 결혼은 별개의 문제이다.⁵⁵⁾ 또 2002년에 개

봉된 영화인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서도 결혼은 조건과 능력이 좋은 사람과, 연애는 사랑하는 사람과 하며, 성은 결혼한 사람과도 연애하는 사람과도 즐기는 여주인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결혼, 사랑, 성은 개인에게 각각 협상 가능한 대상이며, 개인이 어느 정도 자의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범주가 된 것이다.

이렇게 순정만화는 일반적으로 낭만적 사랑을 그린 텍스트라고 받아들여지지만 기실은 낭만적 사랑이라는 문화적 관념이 재편 혹은 해체되고 있음을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순정만화에서는 정서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여성주인공이 감정과 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성숙해 가는 내용을 주로 그리고 있다. 이처럼 순정만화는 관계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외부의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두 사람 간의 인격적, 감정적 관계인 '순수한 관계(pure relationship)'에 대한 탐구라고 해석할 수 있다.

'순수한 관계'란 성적이지 않다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외부의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두 사람 간의 감정에서 비롯되었으며, 애정 관계가 그 자체의 내재적인 성격에 의해 지속된다는 의미를 갖는다.⁵⁵⁾ 기든스의 논리를 따르면, 순수한 관계는 낭만적 사랑에서 발생하였으나, 낭만적 사랑을 변화시킬 내적 동인이기도 한데 이 순수한 관계에 의해 낭만적 사랑은 합류적 사랑으로 질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순정만화는 순수한 관계 안에서 사랑과 성, 결혼을 두 인격적 주체 간의 협상 가능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문화적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순정만화에서 관심과 탐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순수한 관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사랑의 대상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쏟으며,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불필요한 의존이나 간섭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순수한 관계로 인하여 춘향은 전통적으로 개인을 속박해왔던 사회적 관계에 저항하면서 개인의 사랑할 자유를 주

55) 키키편집부, 「그들이 없다면 세상은 재미없다」(<http://kiki.patzzi.com/199912>)

56) 앤소니 기든스, 앞의 책, 28면.

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순수한 관계는 근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끈적끈적하고 부담스러운 봉건적 관계'를 청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개인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도덕성을 확립하는 토대가 되었다.⁵⁷⁾ 이렇게 역사적으로 순기능을 해온 순수한 관계는 현대사회에서도 그 의의를 인정받아, "성적, 감정적으로 평등한 관계이며, 기존의 성차별적 권력 형태에 대해 폭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낭만적 사랑의 순수한 관계라는 것은 오히려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은폐하는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낭만적 사랑의 관념은 여성들에게 공적 영역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권유하여 즐겁게 가정의 종속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가부장적인 권력 관계를 반복하고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순수한 관계에서 두 사람 간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고 할 때, 이 사적인 분야에서는 낭만적 사랑을 꿈꾸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이 분야의 능력을 발전시킨 여성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친밀성⁵⁸⁾을 중시하는 사적인 영역이 부각되어 정서적인 만족을 경제성장의 극대화보다 더욱 중시하는 세상이 도래한다면 이 순수한 관계로 인해 사적인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가능성도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때가 오기 전까지는 순수한 관계를 중시하여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공적 영역에 대한 자기 계발과 참여를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순정만화의 낭만적 사랑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57) 조혜정, 「결혼, 사랑, 그리고 성」, 『새로 쓰는 사랑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 1991, 35면.

58) 기든스는 친밀성을 평등한 두 사람 간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협상이라고 본다. 사회학자인 그가 이 영역에 주목하는 이유는 공적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된 것과 완전히 상충하는 방식으로, 개인 간의 상호작용 영역이 전면적으로 민주화되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앤소니 기든스, 앞의 책, 29면.)

6. 결론: '비판'과 '즐김'의 대중문화 교육

이 연구는 만화에 대한 국어교육적인 관심의 폭을 확장시키려는 의도에서 행해졌다. 문화교육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재 청소년이 즐기는 대중문화인 만화에 대하여 매체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적 관심과 청소년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둘을 함께 강조하는 이유는 대중적인 문화생산물에 대한 '비판'과 '즐김'이 병행할 때만이 자신의 즐거움마저 성찰할 수 있는 주체, 또 자신이 즐기는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아가는 주체의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낭만적 사랑의 이상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찰하는 데 오랜 기간 영향을 끼쳐 왔다. 이를 달리 말하면, 낭만적 사랑은 문화적 각본으로서 여성이 자신의 사랑을 '써나아가는' 데 있어서 모방의 대상이 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해왔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데올로기는 단지 개인이 자신의 관념을 조직하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상을 만들어내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 속에 자신을 위치 짓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⁵⁹⁾ 이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개인들은 자신의 신념과 의지, 실천력을 가진 주체(subject)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는 여성적인 주체로서 개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낭만적 사랑은 이데올로기일 뿐이다'라고 비판하며 폐기해버리는 데 있지 않다. 이데올로기 없이 개개인이 각자의 정체성을 만들며, 세계 속에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는 이미 여성 청소년들의

59) 이데올로기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이글턴의 『이데올로기 개론』(여홍상 역, 한신문화사, 1994), 1장 참조. 이 책에 제시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다양한 정의 중, 이 글에서는 이데올로기를 '개인 주체에 특정한 위치를 부여하는 것', '정체성 사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환영', '의식적 사회 행위자들이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매체', '행동지향적 신념 체계', '개인이 사회 구조에 대한 관계를 체험하는 필수적 매체', '사회 생활이 자연적 현실로 전환되는 과정' 등의 의미로 포괄적으로 사용하였다.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교육적인 조치는 낭만적 사랑이라는 문화적 관념을 성찰적인 태도로 자신의 삶으로 수용하기, 또는 이미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인 낭만적 사랑을 비판적으로 읽음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성찰적으로 재구성하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한혜정은 낭만적 사랑이 행위자의 성찰성 없이 모방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상투성을 지적하였다. 즉, 낭만적 사랑의 관념을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고, 그것을 주체성 없이 자신의 삶의 각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밖에서 주어진 정해진 각본대로 연기하는 것으로서 자신에게 어울리지도, 체화되지도 못한 역할을 어리석게 반복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⁶⁰⁾

많은 문학 작품에서 문화적 각본을 성찰성 없이 모방하는 상투적 삶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의 주인공인 엠마 보바리는 그녀가 사춘기 시절에 읽었던 삼류소설의 여주인공들의 생활에서 암시 받은 욕망을 모방한다. 지라르가 지적하듯 그녀는 스스로를 현재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려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모델’을 하나 정하고, 그들이 그렇게 되기로 결정한 인물들에게서 모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방한다. 자신의 자발적인 욕망이 아니라 타인에게 암시받은 욕망을 가진 주인공이 결국 그 허영심⁶¹⁾으로 인하여 파멸에 이르는 내용을 담은 <보바리 부인>은 낭만적 사랑과 텍스트 속의 낭만적

60) 조혜정, 앞의 글, 34면 참조. ‘상투성’은 제3세계에서 서구적인 문화적 각본을 표적으로 수용하는 현상에 대해 비판하며 쓴 말이다. 그러나 문화적 각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삶의 서사를 대치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확장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61) 지라르는 보바리의 욕망을 다른 주체들을 통해 얻어진 낭만적인 욕망이라고 분석하였다. 이 낭만적인 욕망으로 인하여 보바리는 낭만적인 여주인공들을 모방하여 자기중심적이고, 욕감적인 시골 신사를 멋진 왕자님으로 오해하였다. 또 그녀는 파리 사교계를 환상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지라르는 허영심이 어떻게 대상을 변화시키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조 태양인 중개자(필자 주: 모방의 대상)에게서 쏟아지는 신비로운 햇빛은 대상을 거짓 광채로 번쩍이게 한다.”(르네 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김치수, 송의경 역, 한길사, 2001, 60면.)

사랑의 주인공을 모방하는 태도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또 박완서의 <휘청거리는 오후>에서 낭만적 사랑을 꿈꾸고 실현하려 하였던 '우회'가 좌절하는 모습에서 성찰성 없는 모방이 초래할 비극적 결말을 엿볼 수 있다.⁶²⁾

낭만적 사랑에 대한 가치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나, 어떤 문화적 각본이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수용하는 자세에 성찰성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성찰성은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생각 하며, 낭만적 사랑의 각본에 대해서는 한시적 유효성만 인정하는 영악 함⁶³⁾과도 구분될 것이다. 낭만적 사랑은 무조건적인 폐기나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발전시키며 변화시켜야 할 문화적 각본으로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며, 그 문화의 변화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고 새로운 문화적 각본이 수입되어 모방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상투적이며 피상적인 '결도는 삶'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즐김'의 문화에 대한 '비판', '비판'을 통해 형성된 문화를 다시 '즐김'이라는 끊임없는 순환고리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대중문화에 대한 교육의 요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자료>

완판84장본 <烈女春香守節歌>

강경옥, <라비헐폴리스>1-3권, 시공사, 2000.

원수현, <폴하우스>1-16권, 서울문화사, 2002.

62) 박완서의 <휘청거리는 오후>를 낭만적 사랑의 관점에서 자세히 분석한 결과는 조혜정의 앞의 글, 38-39면 참조.

63) 문화인류학적으로 행해진 연구의 면접 결과, 여성 청소년들은 '로맨스는 소설, 순정만화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곽선영, 앞의 글, 참조). 이는 여성 청소년들의 일탈적 해독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즐기는 문화와 자신의 삶의 연결 고리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피상성을 드러낸다고 파악된다.

이미라, <인어공주를 위하여>1-7권, 시공사, 2001.

<논문 및 단행본>

- 곽선영, 「여성장르로서의 순정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 2001.
- 김대행, 「매체언어 교육론 서설」, 『국어교육(9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 김대행, 「인간의 두 얼굴과 문학적 흥미」, 『시사 시학 연구』, 이대출판부
- 김동환, 「문화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 『국어교육학회자료집』, 2002.9.14.
-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1.
- 박인기,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회자료집』, 2002.9.14.
- 박인하, 「라비웹플리스: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배운다」, 『고구마(<http://goguma.komics.net>)』12호, 2002. 2.
- 박일용, 『조선시대 애정소설』, 집문당, 1993.
- 박희병, 「춘향전의 주제」, 『한국 문학사의 쟁점』(장덕순 외), 집문당, 1986.
- 서영채, 「한국소설과 근대성의 세 가지 파토스」, 『문학동네』, 1999. 여름호.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편, 『국어교육학사전』, 대교, 1999.
- 신말기, 「순정만화에서의 강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도피 전략」, 『달나라 딸세포(<http://dalara.jinbo.net/webzine0>)』.
- 이상택, 「춘향전 연구」, 『국문학연구(3)』, 서울대 국문학연구회, 1966.
- 임성래, 「연애소설의 관점에서 본 <춘향전>」, 『매지논총(17)』, 1999.
- 정성희, 『조선의 성풍속』, 가람기획, 1998.
- 조동일, 「갈등에서 본 춘향전의 주제」, 『계명논총(7)』, 1970.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1997.
- 조혜정, 「결혼, 사랑, 그리고 성」, 『새로 쓰는 사랑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 1991.
- Anderson, B., 『상상의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Imagined communities)』(윤형숙 역), 나남, 2002.
- Carol Gilligan,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 Women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 Eagleton, T. 『이데올로기 개론』(여홍상 역), 한신문화사, 1994.
- Giddens, A.,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배은경, 황정미 역), 새물결, 1995.
- Giddens, A., 『현대사회학(Sociology)』, 을유문화사, 1994.
- Girard, R.,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Mensonge Romantique et Vérité Romanesque*)』, 김치수, 송의경 역), 한길사, 2001, 60면.
- Hauser, A.,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근세편』(백낙청·반성완 역), 창작과비평사, 1994.
- Rath, W., 『사랑 그 딜레마의 역사』(장혜경 역), 1999.
- Luhmann, N. *Love as Passion*, Cambridge, 1986.
- Snow, C. P., 『두 문화(*Two Cultures*)』(오영환 역), 민음사, 1996.
- Willis, P. *Common Culture*, Open University Press, 1990.
- 四方田犬彦, 『만화원론』(김이랑 역), 시공사, 2000.

〈참고 사이트〉

- 만화비평모임 및 웹진 '두고보자', <http://www.dugoboza.net/>
부천만화정보센터, <http://www.cartooncity.co.kr/>
페미니즘 웹진 '달나라 딸세포', <http://www.dalara.jinbo.net/>

〈초록〉

춘향전과 순정만화를 통해 본 '낭만적 사랑'의 형성과 변화

황 혜 진

이 연구에서는 애정 문제를 다룬 서사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춘향전과 순정만화를 비교하면서 두 텍스트가 근대적 애정의 형식인 '낭만적 사랑'을 각각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낭만적 사랑이라는 문화적 관념을 공유하고 있는 춘향전과 순정만화의 구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낭만적 사랑'이라는 문화적 관념의 한쪽 끝에는 춘향전이, 다른 한쪽 끝에는 순정만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춘향전은 낭만적 사랑이라는 관념의 발생기적인 모습을 담고 있으며, 순정만화는 이 관념이 변화를 겪고 있다는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춘향전은 낭만적 사랑의 발생기 모습을 보여주는 문화적 텍스트로서 분석하였다. 춘향전의 주인공인 몽룡과 춘향은 재자와 가인이라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이는 사랑에 빠진 유일무이한 대상에 대한 이상화를 요구하는 낭만적 사랑의 영향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들이 각각 양반과 기생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을 때, 낭만적 사랑이 혼외적인 관계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춘향의 애정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춘향전은 열정적 사랑과 숭고한 사랑의 복합체인 낭만적 사랑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 하룻밤만에 성적인 결합까지 이룬 긴박한 열정적 사랑은 열(烈)이라는 이념적 차원으로 승화하면서 비로소 낭만적 사랑의 궤도에 안착할 수 있었다. 서구에서는 종교성이 열정적 사랑을 낭만적 사랑으로 변모시키는 숭고한 사랑의 관념을 제공하였지만, 우리의 경우, 유교 이념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춘향전에서 사랑의 결말은 암행어사가 되어 나타난 몽룡이 춘향을 구하고 춘향과 결혼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말은 소위

'백마 탄 왕자'가 여주인공을 구원하고 결혼에 이르는 낭만적 이상이 투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각본은 춘향이 써간 자신의 서사이기도 하다. 유일무이한 애정 상대와 영원한 결합을 위해 결혼을 꿈꾸고, 현실화시킨 춘향은 낭만적 사랑을 자율적으로 완성시킨 인물이라는 의미에서, 성과 사랑, 결혼이라는 세 범주의 역사적인 결합인 연애 결혼의 문화적 관념을 선구적으로 구현한 문학적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낭만적 사랑의 관념은 현재의 순정만화에서 그대로 지속되는 것만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유일한 애정의 대상과 결혼을 통해 영원한 결합을 꿈꾸는 낭만적 이상은 대체로 유지되나 그 내부에서는 변화의 징후가 감지되기도 한다. 변화의 징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정만화에서도 주인공들이 이상화되기는 하지만, 보살피는 여성상이 부각되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는 여성이 감정적 삶의 영역에서 남성들보다 우수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 순정만화는 사건 위주의 서사적인 줄거리 속에 '관계와 감정에 대해 성숙해 가는 여성 주인공의 내면의 흐름'이라는 또다른 줄거리를 갖고 있다. 이는 춘향전의 '벼락'과도 같은 열정적 사랑이 사라진 상태에서, 관계와 감정에 대한 성찰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여전히 결혼으로서 끝맺는 순정만화가 많다는 것은 결혼으로 사랑의 영원성과 아울러 미래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문화적 각본이 설득력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낭만적 사랑의 세 가지 범주 중, 순정만화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사랑'이다. 결혼이 여전히 유의미한 결말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순정만화에서는 연애 감정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 연애는 성애적인 요소를 축소·결핍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순정만화는 이미 근대적인 낭만적 사랑의 관념을 해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낭만적 사랑이 사랑, 결혼, 성이라는 서로 다른 범주를 한 데 합쳐 놓은 것이라면, 순정만화는 이 범주들을 다시 떼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순정만화는 일반적으로 낭만적 사랑을 그린 텍스트라고 받아들여지지만 기실은 낭만적 사랑이라는 문화적 관념이 재편 혹은 해체되고 있음을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낭만적 사랑에 대한 가치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나, 어떤 문화적 각본이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수용하는 자세에 성찰성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낭만적 사랑은 무조건적인 폐기나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발전시키며 변화시켜야 할 문화적 각본으로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며, 그 문화의 변화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고 새로운 문화적 각본이 수입되어 모방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상투적이며 피상적인 '결도는 삶'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즐김'의 문화에 대한 '비판', '비판'을 통해 형성된 문화를 다시 '즐김'이라는 끊임없는 순환고리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대중문화에 대한 교육의 요체라고 생각한다.

【핵심어】 낭만적 사랑, 문화적 개념, 사랑, 성, 결혼, 문화교육

〈Abstract〉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Romantic Love' in the 'Chunhyangjun' and 'Sunjung Manhwa'

Hwang, Hye-Jin

This study is about a 'romantic love' as a cultural and historical idea which is formed and reformed by cultural texts. As cultural texts, 'Chunhyangjun' shows the generational form of the idea and a series of 'Sunjung Manhwa', comic books read by teenage girls, shows the changes of the idea. Although two texts are different in media and times of creation, they share the cultural concept, romantic love. The romantic love is not a universal form of love, but a accidental and historical form of love. It combined three cultural categories, sex, love, and marriage. Doing so, it became a moral of modern family.

In the 'Chunhyangjun', we can see the generational form of the romantic love. The hero and the heroine are 'Yangban' and 'Gisang' in the aspect of social position. It tells us that the romantic love was born in extramarital relationship. And the hero, a man of talent and the heroine, a woman of beauty are falling in love passionately. But the passionate love last not very long, so it needs a stabilization mechanism of the feeling. The heroine, Chunhyang uses 'Yeol'(烈), the feudalistic ethic, in the purpose of lasting of love. In the West, the

Christianity played the role of transform of the passionate love into the romantic love. And the text is ended in marriage, the union of a man and an woman who are not in accordance with social positions. It settled a pattern of the romantic love, and Chunhyang is a cultural heroine who embodied the idea of the romantic love initially.

In 'Sunjung Manhwa', we can find signs of change and transformation of the romantic love. In the process of romantic idealization, heroines get an ability of care for man. It tells us that in the field of emotional life, women are superior to men. Another characteristic of the text has two storyline: the one is a narrative of love affairs and another is a narrative of feelings of love. In 'Sunjung Manhwa', the latter is more important than the former. It means that the present love has more interests in the feeling of love and relation itself than the past one. Admitting that most 'Sunjung Manhwa' is ended in marriage, the last characteristic of the text is that it separates three categories, love, sex, marriage which were put together in the past. 'Sunjung Manhwa' is accepted that the most powerful media which reproduce the idea of romantic love, but actually, they are the signs of the changing romantic love.

'Sunjung Manhwa', Comic books for women, is one of the girl students favorite popular media. And romantic love is still prevailing in present culture. This study has an objection of making contents of culture-education. The traditional cultural production, 'Chunhyangjun' is shows the outbreaking form of romantic love. And it can play a important role in defamiliarization of present culture. As a result of that, an

ability of self-examination will be developed.

【Key words】 romantic love, cultural concept, love, sex, marriage, culture-education